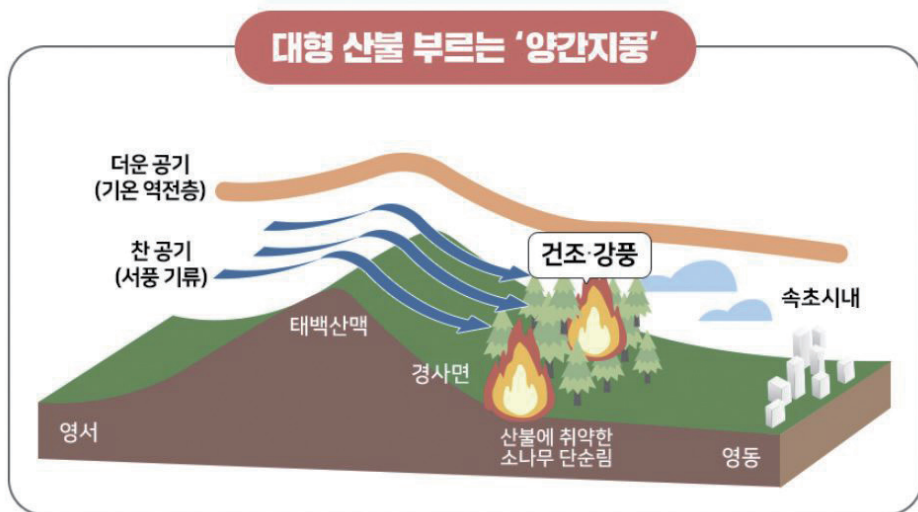


Q3 | 양간지풍이란 무엇인가요?

A 봄철 한반도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머물면 그 사이에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풍속이 빨라지고 돌풍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해마다 봄철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부는 이러한 강풍을 양양과 간성, 혹은 양양과 강릉에 부는 국지적인 강풍이란 뜻에서 양간지풍 혹은 양강지풍이라고 합니다.

양간지풍은 고온건조하며 소형 태풍급에 버금갈 정도로 풍속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2022년 울진·삼척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3월 4일 울진 지역에서 관측된 최대순간풍속이 27m/s로 여름 태풍 수준에 맞먹기도 했습니다. 2019년 4월에 발생한 강원도 대형산불도 최대순간풍속이 30m/s의 바람이 불었으며, 2005년 4월 발생해 천년고찰인 낙산사를 덮쳤던 산불 역시 순간 최대풍속 32m/s인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양간지풍 원리

※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